

근현대사 속의 수의축산 이야기(2)



양 일 석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서울대 명예교수
 isyang@snu.ac.kr

이에서와 같이 축산업무는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식산국 농무과에서, 1912년 농림국이 신설된 후로는 농림국 농무과에서 관할하였으며, 축산과가 있는 기간(1938.8.8.~1943.10.30)은 당연히 축산과 소관이었고, 그후 농무과 마저 없는 해의 직제(1944년 11월 22일 이후)에는 농산과(農産課)가 맡았다.

1943년 12월 1일(훈령88호)의 사무분장개정에 의해 농림국 축산과는 다시 농림국 농무과에 흡수된다. 당시 개정된 농무과의 사무분장에 따르면, 6번 항목에 축산, 가축위생, 마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어 있다. 패전에 임박했던 당시 총독부는 전쟁과 관련이 없는 행정을 간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44년 11월 22일(훈령96호), 또 한 번의 큰 조직개편이 일어나 기존의 농상국 농무과가 농상국 농산과로 개편되자, 농무과 소관이었던 축산행정은 이제 농산과(農産課)의 관할업무가 되었다. 그리고 축산행정이 농상국 농산과 관할인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미군정청에서는 조선총독부 마지막 직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미군정청 출범시에는 축산업무는 농상국 농산과 관할이었다.(그림3)

조선총독부의 부속관서

1) 권업모범장, 농사시험장

일제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미곡을 반출하여 자국의 부족한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쌀이 일본에 수출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한국의 쌀이 일본에 수출될 정도로 충분히 생산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미질이 일본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기에는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쌀은 양과 질 양면에서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는 농사모범장 설치를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 주도의 농사시험장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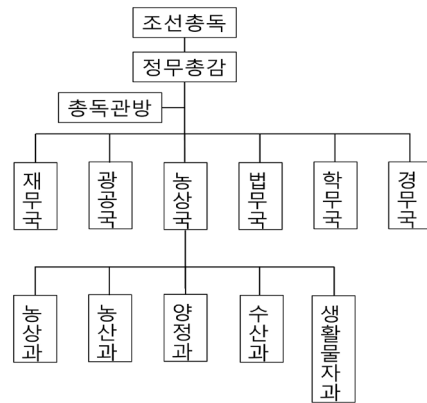


그림3. 조선총독부의 본부 내부기구(1945.4.17 현재) (신상준,1977) 농상국 중심으로 간략화함

립이 추진되었지만 이를 묵살하고 1906년 6월 일본정부 주도의 권업모범장을 경기도 수원에 창설하였던 것이다.(naver.com)

1904년에는 농상공의 실업에 관한 학술과 기능을 교육하고자 농상공학교를 서울에 설립하였다.(이 학교가 수원으로 이전하여 수원농립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1906년에는 통감부에 의해 목적의 시험장이 폐지되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농업지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과 일본 식량공급지로서의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통감부는 같은 해 6월 15일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개설하였다. 1910년9월30일자 칙령 제370호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관제”에 의하여 조선총독부 관리 하에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여 통감부 시기의 권업모범장을 확대 개편하고, 농립학교를 부속하는 것이었다. ‘모범’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일본은 일본식 농업방법을 권업모범장에서 시행해보고 조선인에게 전달하는 강제적 이식(利殖)을 목표로 하였다. 권업모범장은 1929년 9월 17일에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방이후 미군정청에서는 중앙농사시험장으로 개칭되었고,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다.

축산과학원의 홈페이지에는 “1906.04 권업모범장 축산부 설

립, 1947.12 농사기술원 성환 축산지원으로 개칭”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화산목장’(국가기록원)이 권업모범장 화산지장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특별한 발전은 없었던 듯하다. 1929년 9월 17일 권업모범장이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으로 변경되었는데 “1929년부터 당부에 화산목장을 부설하여 축우개량의 목표에 맞는 표준체형의 설정, 축력, 채비(採肥) 등 이용증진 방법, 사료의 공급과 생산비 절감 등 특히 한우의 개량 증식에 관한 기초적 시험연구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앞서의 25주년 기념지는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환축장은 ‘일본 사람(赤星鐵馬)이 개인으로 종마목장(500ha)을 하다가 낙농목장으로 전환한 후 해방이 되었’(최병인님 증언) 이를 충청남도가 인수하였으며, 미군정기인 1947.12 농사기술원 성환 축산지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1952년5월10일 대통령 640호로 농림부 직속 중앙축산기술원으로 확장 개편하였다.

2) 종마목장

1932년10월31일자 칙령 제330호 “조선총독부종마목장관계”를 공포하여 종전의 권업모범장 목마지장의 후신인 종마목장을 조선총독 관리하에 두어 ① 종마의 개량번식육성 및 조교(調敎) ② 종빈마(種牝馬)의 종부대부(種付貸付) ③ 종빈마의 대부 ④ 마산(馬産)에 관한 제반조사를 관장케 하였다.

3) 종양장

1934년 8월6일 칙령 242호 “조선총독부종양장 관계”를 공포하여 함경북도 명천(明川)에 조선총독관리하의 조선총독부종양장을 설치해서 ① 종양의 사양관리 개량번식 및 육성, ② 종면양의 배부대부종부(配付貸付種付) ③ 면양사양의 지도 권장 감독 ④ 면양 생산물의 제조가공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1937년 7월 조선총독부령 제 104호에 의하여 종양장을 함경북도 명천과 평안남도 순천에 두도록 하였다. 1931년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끼(宇垣一成)는 농업정책을 중요시하여 농촌의 자력갱생과 이른바 남면북양(南綿北羊) 정책을 추진하여 북쪽의 두 곳에 종양장을 두었다.

4) 수출우검역소, 이출우검역소, 동물검역소

1906년7월 대한제국(통감부시절) 농상공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우검역소가 부산 남구 우암동에 설치되었다. 이는 일본으로 보내어지는 한우를 검역하는 기관이었다. 이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자 이출우검역소(移出牛檢疫所)로 변경되었다. 수출이란 어느 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뜻하는데 조

선과 일본은 “같은 나라”로 간주하여 “옮겨보냄”의 뜻인 이출을 사용하였다. 현재 이러한 용어는 개성공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수출우검역소는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탁지부 산하기관(부산세관)이었으나 1912년4월 관계 개정으로 경무총감부(나중에 경무국) 소관 업무로 변경되었으며 1927년7월 경상남도 경찰부로 지휘권이 이관되었다.

인천, 진남포, 성진, 포항에도 이출우검역소가 설치된 바 있으며 1941년 11월19일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개정으로 이출우검역업무가 조선총독부 농림국 축산과 소속(43년11월 축산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농무과로 이관)으로 이전되었으며, 같은 해 인천, 포항, 성진은 폐지되었다.

해방 후 부산이출우검역소는 부산가축검역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62년 5월 동물검역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8월1일에는 가축위생연구소와 통합하여 검역원으로 출발한다.

5) 우역혈청제조소, 수역혈청제조소, 가축위생연구소

1911년4월 “우역혈청제조소관계”에 의해서 우역혈청제조소가 설치되었는데 1918년 3월 칙령 제 31호“조선총독부 수역혈청제조소관계”를 공포하여 우역혈청제조소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 관리 하에 조선총독부 수역혈청제조소를 두고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액 및 혈청의 제조시험, 기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 기구는 우역의 면역혈청을 생산하여 보급과 우역연구를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우역은 현재 지구상에서 소멸(2011년 바이러스 소멸)되었지만 당시는 우제류에 전염되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소화기계 점막에 심한 상처를 주어 설사로 인한 탈수로 80%까지 폐사하게 되므로 우역발생은 기근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수역혈청제조소는 ①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액 및 혈청제조와 시험에 관한 사항 ② 가축전염병조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③ 두묘(우두)의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사항 ④ 가축전염병의 예방액 및 혈청, 두묘와 그 부산물의 배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사무분장하였다. 1942년 5월6일 칙령485호 다시 가축위생연구소로 개칭됨과 동시에 부산은 본소로 하고, 안양에 지소가 설치되었으며, 미군정시에는 보건후생부 연구국 소속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부산가축위생연구소는 한반도는 물론 일본으로 전파되는 우역을 차단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곳이다. 그리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한민국경지대에 방역대(immune zone)를 구축하여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1월 함경도에 우역이 발생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대 소동이 야기되었던 것을 상기할 때 해방 후 38선으로 분할된 이북 땅의 방역문제가 시급을 요하는 일이지만 연구소내 사람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던 차 1946년 이른 봄 김종희 소장의 후배인 김풍년이 북한에서 배를 타고 연구소에 찾아와 우역예방약과 면역혈청의 분양을 요청하여 왔던 것이다.

미군정청에 승인을 요청하면 사회분위기로 보아 불가함은 당연할 것이고 남한의 연구원이 북한으로 들어가 방역활동하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김소장은 심사숙고 끝에 병독부 실무책임자에게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예방약과 우역혈청을 내주시오. 이북에서의 방역은 이남을 위한 방역이 될 것이고 나중에 미군정청이 알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요”이에 상당량의 우역예방약과 면역혈청이 북한으로 수송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동안 잠잠했지만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직원이 미군정청에 투서를 하여, 조사가 시작되었고 예방약을 건네준 병독부 실무책임자는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김소장이 조사를 받았다 이리던 차에 연구소내 두묘부(痘苗部, 우두생산 부서)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방화냐, 누전이나? 로 다시 연구소가 분란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 그는 미군정청의 사전승인없이 각종 예방약을 북송한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소장직에서 해임 됨과 동시에 김소장이 초빙한 간부들도 연구소를 떠나게 되었다. 그 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구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을 시도하였으나 미군정청에서 복직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무위로 끝나자 1946년 말 가족과 함께 월북하였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김종희의 해방 후 연구소 업무추진 과정이나 우역제제를 북한에 보냈던 과정이 이념이 게재되어 있다고 의심되지는 않았지만 인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과의 불협화음과 시대상황이 우수한 인재가 자진 월북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그는 46년 11월 월북하여 47년 1월 9일 김일성을 접견하였으며 1947년 이후 김일성대학 농학부 부학부장(김일성대학 농학부는 원산으로 이전한다), 원산농대 수의학과 교원, 수의학연구소장을 맡았으며, 1965년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 연구사, 김일성상 수상 및 박사과 원사 칭호를 얻었으며 1979년에는 교수칭호, 1996년 10월 24일 타계하였다. 북한에 있는 동안 수의생물약품공장을 만들어 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고, 우역백신과 혈청에 대한 연구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업적을 이루었다고 소개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소속의 연구

국 이전(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미군정청의 보건후생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시 사회부와 보건부로 나뉘어 발족하였다. 대통령령 제25호(48.11.4) 사회부 직제 공포 제1조에 사회부는 보건, 후생, 노동, 주택, 부녀문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그리고 제5조에 보건국에 보건과, 의무과, 약무과, 방역과, 한방과 및 간호사업과를 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대통령령 제149호(49년 7월 25일) 사회부 직제 개정을 통하여 제1조 ‘보건’, 제3조 ‘보건국’을 삭제하고, 제 5조 자체를 삭제하여 보건부로 이관하게 된다 (대통령령 제150호). 이로 미루어보면 가축위생연구소가 사회부에 소속(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년사, p746)되어 있어도(법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음) 느슨하게 소속되어 있다가 다음의 근거로 농림부 소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 제 193호(49.10.7) 중앙가축위생연구소 직제의 “제1조 수의기술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감독하에 중앙가축위생연구소를 둔다. 또한 제9조에는 국립부산가축위생연구소 및 국립안양가축위생연구소는 폐지하고 두묘부를 제외한 공무원 및 설비는 중앙가축위생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현존하는 기구를 폐지하고 중앙가축위생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존치한 것은 미군정 이후 가축위생연구소의 소속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연구국 소속에서는 부산이 본소이고 안양이 지소이었는데 대통령령에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그 후에도 본소(부산), 지소(안양)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안양이 본소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태풍 사라호(1959.9.17)가 남부지방을 강타하여 부산가축위생연구소가 큰 피해를 입어 소장 김영한은 그 복구비를 요청하려 동분서주하였으나 국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USOM의 Gooley와 이규명을 찾아 하소연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농업연구기관을 수원 중심으로 결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경제원조 자금을 얻어 지금의 검역본부[가축위생연구소]의 본관 건물(다른 건물과 모양이 좀 다르다)을 신축하고 본소를 이전하게 하였다. 이 원조사업은 사라호 태풍피해를 위해 USOM이 농촌진흥청에 지원한 유일한 사업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 공포에 따라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로 발족되어 본소와 지소의 위치가 바뀌어 안양이 본소, 부산이 지소가 되었으며, 부산지소는 63.10 폐지되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1994년 수의과학연구소로 개칭, 1998년 8월 1일 동물검역원과 통합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이 되었다. <계속> 